



# 사업 개요

---

## 무형유산 영상 기록 워크숍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무형유산 영상 기록 워크숍’이 2013년 7월 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었다. 본 워크숍에는 몽골 문화체육관광부(MCST), 유네스코몽골위원회, 국립문화유산센터(CCH), 몽골 국영방송(MNB-2), 몽골영화협회(UMF), 국립과학원 산하 역사연구소(NIHAS)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 약 30여명이 참여하였다.

한국에서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최선복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센터 직원들과 황인수 프로듀서를 비롯한 한국교육방송(EBS)의 영상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한국 전문가들은 무형유산 영상 기록 방법론 및 첨단 기술 사용법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는 몽골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몽골국영방송 프로듀서 J.에르덴초크, 몽골영화협회 기록담당자 G.바트-이레뒤, 국립문화유산센터 무형유산과장 S.운덴바트 등 몽골측 전문가들 역시 몽골 무형유산 영상 기록 경험 및 활동에 대해 소개하였다. 양국의 전문가들은 몽골과 한국에서의 무형유산 영상 기록 현황 및 어려움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워크숍의 내용은 몽골 국영방송 채널 2를 통해 몽골에서 방영되었다.

본 워크숍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몽골과 한국의 영상 기록 전문가들은 현재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형유산 영상 기록의 성공적인 측면과 어려움을 소개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몽골에 적용 가능한 영상 기록 방법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첨단 장비 및 기술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음으로써 몽골 전문가들이 무형유산 영상 기록에 있어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본 협력사업의 결과로 몽골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법론, 기술, 시나리오 등이 논의되었고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등이 구상되었다.

## 현장 기록 공동 작업

한-몽골 양국의 현장 기록 공동 작업은 “인류무형유산-몽골 나담”이라는 이름으로 우부르항가이 지역의 예순-주일 마을과 울란바타르의 종합경기장, 그리고 쿠이 도룬 후닥

지역에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현장 기록 공동 작업의 주요 목적은 유목민으로서 몽골인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주요 무형유산이자 국가적 축제인 나담의 특징과 의미, 목적 등을, 나담을 준비하는 여러 과정 및 의례 등에 대한 영상 기록을 통해 자세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몽골 자연문화유산보호재단 관계자, 한국교육방송(EBS)과 몽골국영방송(MN2)의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공동 기록팀은 기록하고자 하는 종목을 다루는 주요 컨셉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공동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몽골공예협회는 예순-주일 마을에서 주관한 지역 나담 축제 행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었다. “인류무형유산-몽골 나담”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 행사 배너의 영문 및 몽골어 글자를 서예로 손수 써주었고 마을 주민들에게 몽골의 나담축제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무형유산임을 널리 알림으로써 대중들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 공동 기록 첫째 날(7월 7일)

첫째 날 오후 공동 기록팀은 예순-주일 마을의 나담축제 준비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마을의 여러 가정을 방문하였다. 공동 기록팀은 말 사육사, 씨름 선수, 말 조련사의 집을 방문하여 축제 전날 행해지는 의례, 의식 등을 기록하였다. 말 조련사의 집에서는 나담 축제에 출전할 말을 준비시키고 조련시키는 과정, 특히 출전마의 갈기를 다듬고 안장 및 악세사리로 말을 장식하는 모습, 축제날 입을 몽골 전통 의상 딜(deel)을 준비하는 것과 전통 음식을 말리고 준비하는 과정 등을 세세히 기록하였다.

#### 공동 기록 둘째 날(7월 8일) - 나담 축제 첫째 날(예순-주일 마을)

나담 축제 프로그램에 따라 공동 기록팀은 예순-주일 마을 나담 축제 개막식, 아자르크(종마) 경주, 이흐 나스(성마) 경주, 씨름 경기 1, 2, 3 차전, 손가락 튕기기 게임(knucklebone shooting), 텀베 게임, 활쏘기 등을 기록하였다.

#### 공동 기록 셋째 날(7월 9일) - 나담 축제 둘째 날(예순-주일 마을)

나담 축제 둘째 날에는 씨름 경기 4, 5, 6 차전과 소올룬(생후 5년된 조랑말) 경주, 히야 잘란(생후 4년된 조랑말) 경주, 솔드린(생후 3년된 조랑말) 경주, 그리고 베스트 커플 기수 경연대회 등을 기록하였다.

베스트 커플 기수 경연대회에는 총 12쌍의 커플 기수들이 출전하였다. 이들은 형형색색의 몽골 전통 의상을 맞춰 입은 채로 각기 개성대로 꾸민 말을 타고 나담 축제장을 돌며 각각의 특색을 뽐내었고 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베스트 커플 기수로 뽑힌 5쌍의 기수들 외에도 출전한 모든 커플들이 소정의 상품을 받았다.

나담 축제가 끝난 후 공동 기록팀은 경주에서 승리한 말의 사육사의 집에 방문하여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기록하였다.

#### 공동 기록 넷째 날(7월 10일)

예순-주일 마을에서의 공동 기록 이후 한국 대표단은 울란바타르에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테를지(Terelj) 국립공원의 성산(聖山)으로 이동하여 엔카자갈(D. Enkhjargal)과 다리출룬(G. Darichuluun)이라는 두 명의 무속인들의 샤먼 의례를 기록하였다. 한국 기록팀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몽골 샤먼 의례의 모습을 경험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

#### 공동 기록 다섯째 날(7월 11일)

공동 기록팀은 국가 규모의 나담 축제가 시작되는 7월 11일, 울란바타르의 종합 경기장에서 공식 개막식 현장을 기록하였다. 이어지는 씨름 1차전 경기와 활쏘기, 손가락 튕기기 게임 등을 기록한 뒤 기록팀은 쿠이 돌룬 후닥(Khui Doloon Khudag)이라는 말경주장으로 이동하여 이흐 나스 말경주를 기록하였다. 기록팀은 종합경기장과 쿠이 돌룬 후닥에 모인 많은 관중들의 모습을 함께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가적 행사로서의 나담 축제가 몽골인들에게 얼마만큼 활발하게 향유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서 그 의미가 있었다. 몽골의 나담 축제는 그 뿌리 깊은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현대의 몽골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와 의미로 더욱 풍성하게 재창조되고 있었다.